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대한 (절반의) 기억

Online Series

2021. 10. 20. | CO 21-30

박 주 화 (통일정책연구실 연구위원)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대한 2018년 2월 국민들의 태도를 재검토하였다.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대해 두 차례 여론조사가 실시되었지만 첫 번째 여론조사 결과만을 기억하고 있다. 2018년 2월 1주 차 여론조사에서는 단일팀 구성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했지만, 2018년 2월 4주 차 여론조사에서는 단일팀 구성에 긍정적인 여론이 우세하였다. 절반의 기억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 절반의 기억이 발생한 원인, 두 차례 여론조사에 드러난 단일팀에 대한 인식 변화 원인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평화공감대 확산의 차원에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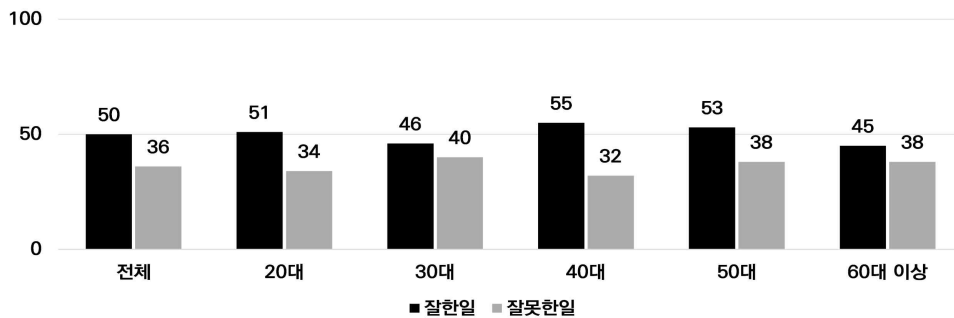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대한 두 차례 여론조사

2018년 2월 23일 한국갤럽(2018.2.23.)은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이하 단일팀 구성)이 잘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¹⁾ 조사결과 단일팀 구성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50%)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36%)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했다. 30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

1) 한국갤럽이 2018년 2월 20일~2월 22일 전국 성인 1002명(95% 신뢰수준에 $\pm 3.1\%$ 포인트)을 상대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이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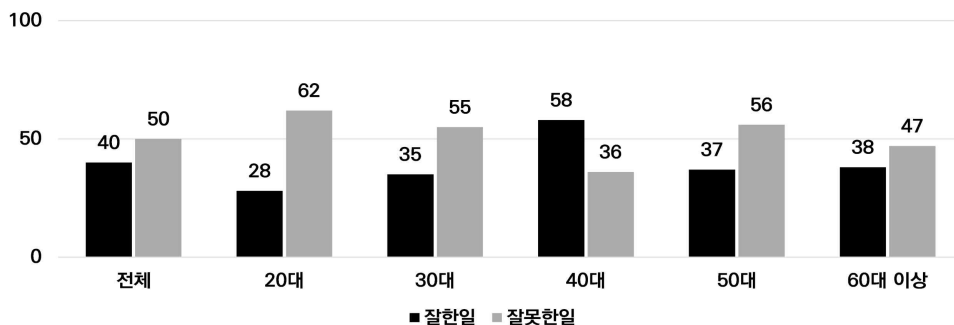
서 단일팀 구성이 ‘잘한 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잘못한 일’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오차범 위 밖에서 우세했다. 20대의 경우 51%가 잘한 일, 34%가 잘못된 일이라고 응답했다.

<그림 1> 2018년 2월 4주 차 평창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단일팀 구성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의 비율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 국민의 비율보다 높고, 특히 2030 세대가 단일팀 구성에 긍정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는 우리 국민 들이 가지고 있는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대한 기억과는 다르다. 국민들이 기억하는 단일팀에 대한 기억은 아마 <그림 2>에 제시된 여론조사 결과일 것이다(한국갤럽 2018.2.3.)²⁾.

<그림 2> 2018년 2월 1주 차 평창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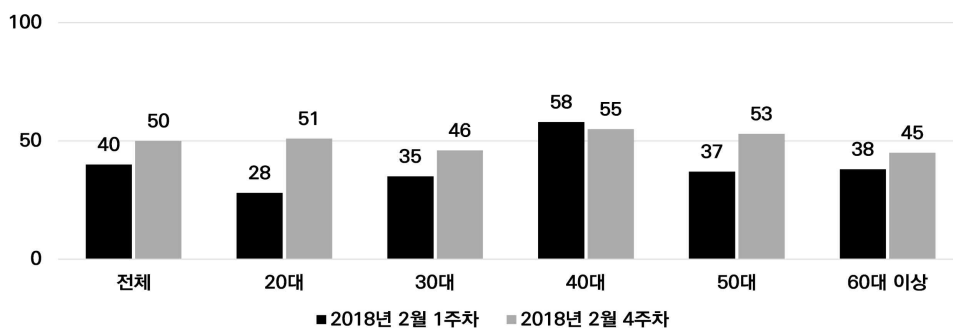


2) 한국갤럽이 2018년 1월 30일~2월 1일 전국 성인 1002명(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을 상대로 조 사한 여론조사 결과이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월 첫째 주 단일팀 구성에 대해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40%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 50%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낮았다. 특히 20대의 62%, 30대의 55%가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대해 두 차례 여론조사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가 판이하였음에도 우리는 왜 첫 번째 여론조사 결과만 기억하고 있을까? 구체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전후로 모든 세대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대한 인식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변했으며 20대와 30대의 경우 인식변화의 폭이 더 컸음에도(20대: 23%p↑, 30대: 11%p↑) 이를 기억하는 국민은 거의 없어 보인다(<그림 3>).

<그림 3> 2018년 2월 평창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이 잘한 일이라고 응답한 비율



평창 동계올림픽 전후로 실시된 두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숫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단일팀에 대한 태도가 한 달 만에 긍정적으로 변했다. 하지만 단일팀은 국민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사건으로 기억되기보다 국민을 분열시킨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절반의 기억’의 부정적 효과

단일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와 국민의 기억 간의 괴리, 사실과 기억의 괴리가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먼저 평화공감대 확산의 대표적 성공사례가 될

수 있었던 사건을 실패사례, 적어도 대표적인 논란의 사례로 만들어 버렸다. 이는 단순히 평화공감대 확산의 차원이 아니라 한반도 정책에 부담으로 작동할 수 있다. 2021년 10월 현재 북한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는 불가능하지만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북한의 올림픽 참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만일이라는 단서가 붙은 상태에서 북한이 동계올림픽에 참가를 한다면 남북 공동입장과 단일팀 구성은 남북의 주요 의제로 떠오를 것이다. 당연히 단일팀에 대한 기억이 가장 먼저 소환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논의는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대한 인식이 변했다는 ‘사실’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2월 1주차 여론조사 결과, 단일팀 구성에 반대하는 여론, 그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과 논란에 대한 ‘기억’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출발점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정치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은 평화공감대 확산정책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치르지 않아도 될 비용이다. 향후 정부의 남북관계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다면 평창의 기억은 언제든 소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평창에 대한 ‘절반의 기억’은 매우 뼈아픈 지점이 될 것이다.

둘째, 단일팀에 대한 국민의 태도 변화를 통해 우리는 국민들의 인식변화를 이끄는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가능했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이제 사라져 버렸다. 무엇이 단일팀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긍정적 태도로 변화시켰는가? 단일팀에 대한 논란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만큼 국민들의 태도 변화도 역시 이례적이었다. 분단의 역사 속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한 달 만에 긍정적 태도로 변화시킨 사례가 있었는가?

셋째, 우리 사회가 보였던 절반의 관심은 2030 세대에 대한 고정관념을 더 강화시키는 근거가 되었다. 우리 사회의 통일공감대, 평화공감대에 대한 논의가 주로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030 세대가 통일문제와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주요 근거이다. 만일이라는 단서를 또다시 붙여서 생각을 해보면, 만일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20대의 비율이 올림픽 전 28%에서 올림픽 후 51%로 증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우리 사회가 공유했다면, 이후 2030 세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했을까? 2030 세대에 대한 뿌리 깊은 고정관념을 고려하면 한반도 문제에 있어 2030 세대에 대한 시선은 크게 변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2030 세대를 움직일 수 있는 또 다른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찾으려는 노력이 진행되었을 수도 있다. 적어도 2030 세대의 인식이 변할 수 있다는 시선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커졌을 것이다.

인식변화의 메커니즘

2월 1주 차에서 관찰된 부정적 인식이 왜 2월 4주 차에 긍정적으로 변했을까? 세 가지 가설이 가능해 보인다. 먼저 2월 1주 차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많은 전문가들이 단일팀에 대한 2030 세대의 부정적 태도를 공정과 정의의 관점, 또는 민족정체감의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그 설명들이 2월 4주 차 여론조사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가? 설명을 할 수 있든 없든 공정, 정의, 민족정체감의 관점에서 국민들의 태도 변화를 바라보는 시도는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적어도 공정, 정의, 민족정체감의 관점의 설명력에 대해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접촉이론으로도 설명이 가능할 수 있다. 국민들이 평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의 경기를 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화해와 편견감소의 대표적 이론인 접촉이론(올포트 2020)³⁾ 또는 간접접촉이론(White et al. 2020)⁴⁾은 국민들의 태도 변화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바람직성이 작동했을 수도 있다. 2월 1주 차 여론조사 이후 벌어진 사회적 논란으로 인해 2030 세대가 자기검열의 기제를 학습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마무리 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어떤 설명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는 사실상 무의미하다.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확실한 것은 단일팀이 일으킨 태도변화의 메커니즘은 미궁의 영역이 되었고 이는 평화공감대 확산을 위한 중요한 메커니즘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도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절반의 기억’의 메커니즘

그렇다면 왜 정부, 전문가, 언론 등은 2월 4주 차 여론조사에 관심을 두지 않았을까? 먼저 2018년 2월 4주 차 이후의 남북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론조사가 발표된 2월 23일, 이틀 뒤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에 북한의 대표단이 참석했고 대표단과 이방카 백악관 선임 보좌관과의 대화 여부가 초미의 관심이었다. 이어 2018년 3월 5일, 대북특사가 파견되

3) 고든 올포트지음, 석기용 옮김, 『편견』 (서울, 교양인, 2020), pp. 415~445.

4) Fiona A. White, et al., "Beyond Direct Contact: The Theoretical and Societal Relevance of Indirect Contact for Improving Intergroup Relations,"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77 (2020), pp. 132~153.

었고 이튿날 4월 말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결정되었다. 즉 사회적으로 평창 올림픽 이후 남북관계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단일팀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한 남북협력의 상징인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대한 여론의 변화는 당시 남북관계 진전의 또 다른 동력이 될 수 있었음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사회·정치적 맥락의 변화와 더불어 사회·동기적 측면에서도 2월 4주 차 여론조사에 대한 무관심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2030 세대에 대한 고정관념을 지지해 주는 증거에만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증거는 무의식적으로 외면했을 가능성이 있다. 2월 1주 차 여론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가 2030 세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정확히 일치하는 결과인 반면, 2030 세대의 단일팀에 대한 태도가 기성세대와 다르지 않다는 2월 4주 차 여론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과 부합하지 않는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 2030 세대는 희생양이어야만 한다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대한 인식변화에 무관심을 이끌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사회·동기적 측면은 **후견지명 편향(hindsight bias)**이다. 후견지명 편향은 간단히 말해 “그럴 줄 알았어” 편향으로 어떤 일이 발생한 뒤 그 일이 발생할 줄 알았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편향이다. 2월 1주 차 여론조사가 발표되었을 때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대한 2030 세대의 반응이 당연하다는 설명이 대다수였다. 개인주의적 가치관, 공정과 정의, 민족 정체성 등 다양한 설명이 제시되었지만 다양한 설명의 공통점은 ‘2030 세대는 그럴 만하다’는 것이었다. 후견지명은 결과의 원인에 대한 확신이자 정당화를 유도, 자신이 틀렸을 가능성에 대한 고려를 약화시킨다. ‘나는 다 알고 있었다’라는 태도 하에서는 자신의 설명과 예측에 대한 모니터링은 기대할 수 없다.

무엇을 할 것인가?

먼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대한 절반의 기억을 교정해야 한다. 단일팀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2월 1주 차 여론조사). 동시에 단일팀에 대해 여론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던 것도 사실이다(2월 4주 차 여론조사). 여론조사가 한 차례가 아닌 두 차례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두 여론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화의 이유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또 다른

확증편향, 후견지명의 편향에 빠질 위험이 있다. 또한 2030 세대의 인식변화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두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숫자 그대로 기억하는 것, 인식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에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일팀 구성에 대한 온전한 기억 속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과 태도를 면밀하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통일을 위한, 평화를 위한 공감대 정책이 아니라 통일에 대한, 평화에 대한 공감대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 필요성 중심의 공감대 확산 담론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국민들은 한반도 문제를 분단의 시각에서, 보편적 가치의 시각에서, 국력과 국격의 차원에서, 평화의 시각에서,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 통일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이분법적 시각으로는 단일팀에 대한 여론,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의 복잡성을 담아낼 수 없다.

통일에 대한,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위해서는 국민이 통일과 평화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 자신의 관점과 대안적 관점을 접하고 토론을 통해 차이를 좁혀가는 사회적 대화형 공감대 확산정책이 필요하다. 통일부와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 대화의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태도를 장기적으로 분석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평화공감대 확산, 평화교육은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 가장 장기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외면당하기 쉽다. 하지만 단일팀에 대한 절반의 기억에서 알 수 있듯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에 대한 무관심은 기회를 실패로 만들어 버렸다. 단일팀에 대한 절반의 기억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책적 관심이 필수적이다. ©KINU 2021

- 사람들은 사실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기억에 따라 살아간다. -

스트라빈스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